

한국청소년의 정의사회에 대한 인식

Korean adolescent's perception of Just society

김 지 경(Kim Ji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Korean society. The survey was conducted over 710 highschool students. The statistics reveal that adolescents view the Korean society negatively. They regard the society as unjust. The main reason was that it is corrupted; that many people make money by dishonest means; and that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too wide. Then, how does adolescents define social justice? The just society they think is 'the society in which people succeed depending on their effort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which determine a social stratum were income and property. Adolescents believe that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compared to their parents' generation and that a student's efforts, intelligence and parents' financial support play crucial role in order to enter those universities. They choose 'contentment in their lives' as the most essential aspect of life. They think they need connections or influence as well as their efforts in order to achieve social success. In terms of career, adolescents choose a teacher as the most respectable job; a doctor as the job which deserves the largest payment; a politician as the job of the highest social status. They also have the perception that power, income, and job opportunities are not equally distributed a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physical and mental labor and thus the gap between their payment is unfair.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and the research which needs to be follow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Key words: adolescents, Korean society, just society, social perception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얼마나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미래의 한국사회의 주역이 바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청소년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촛불 집회와 같은 대중집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인터넷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 견해를 표명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청소년들의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아직은 그들이 정치사회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

적 문제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을 정치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것에 대한 찬반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 아직 생각과 행동이 미성숙한 측면이 있다. 또 앞으로 생각이나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현재 그들의 생각이 확정적이며 고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또 아직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눈에 한국사회가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반영함은 물론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의 행동방식과 사회문제 해결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김순홍 외, 2007) 청소년들의 상당수(43.4%)가 외국에서 살고 싶거나 외국에서 태어나면 좋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만으로 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들이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보였다. 이러한 연구로 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한국사회와 한국사람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분석한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2002)의 연구와 김의철과 박영신(2004), 박영신과 김의철(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와 그 특성을 조사한 바 있다. 김묘성(2004)은 중학생과 부모세대의 한국사람 인식연구를 통해 한국사람이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체면을 중시하고 배타적이며 정이 많고 협동적이며 근면성실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정치지도자들의 문제점으로 부정부패를 들고 있음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소순창(2000)의 연구도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부정부패, 도덕성 결여의 문제점인식을 밝히고 있다. 앞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수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일부 주제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다음의 세부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특히 사회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인식과 사회불평등, 사회정의, 노동관, 직업관을 주 연구주제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연구가운데 이러한 주제들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다룬 연구(김유연, 박성연, 2001; 박여미, 조궁호, 2005; 정명숙, 2005; 조성호, 2002, 이각범, 2005; 김순홍, 2007)가운데 김순홍(2007)의 연구에서 양성평등과 사회적 차별 및 사회에 대한 신뢰가 다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실태조사였으며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 신뢰계층에 대한 연구도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계층과 계층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석현호, 1997; 김병조, 2000). 실제로 고등학생들의 경우 교과과정에서 계층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제로

계층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노동관이나 직업관을 조사한 경우도 없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불평등하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불평등이 심한가에 대한 태도조사도 이루어진바 없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2년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6개 학교(서울 2, 경기 3, 전북 1개 학교)의 고등학교 재학생 71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총 710명의 응답자 중 서울지역 학생 242명(34.1%), 경기지역 학생 350명(49.3%), 전북지역 학생은 118명(16.6%)이었다. 성별 구성은 남자 287명(40.4%), 여자 423명(59.6%)이었으며, 학년 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이 296명(41.7%), 2학년이 294명(41.4%), 3학년이 120명(16.9%)이었다.

2. 조사내용

조사 내용은 청소년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인생관, 계층관, 대학진학에 대한 인식, 노동관, 우리 사회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 직업지위에 대한 인식,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이라는 소주제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조사 후 분석은 sps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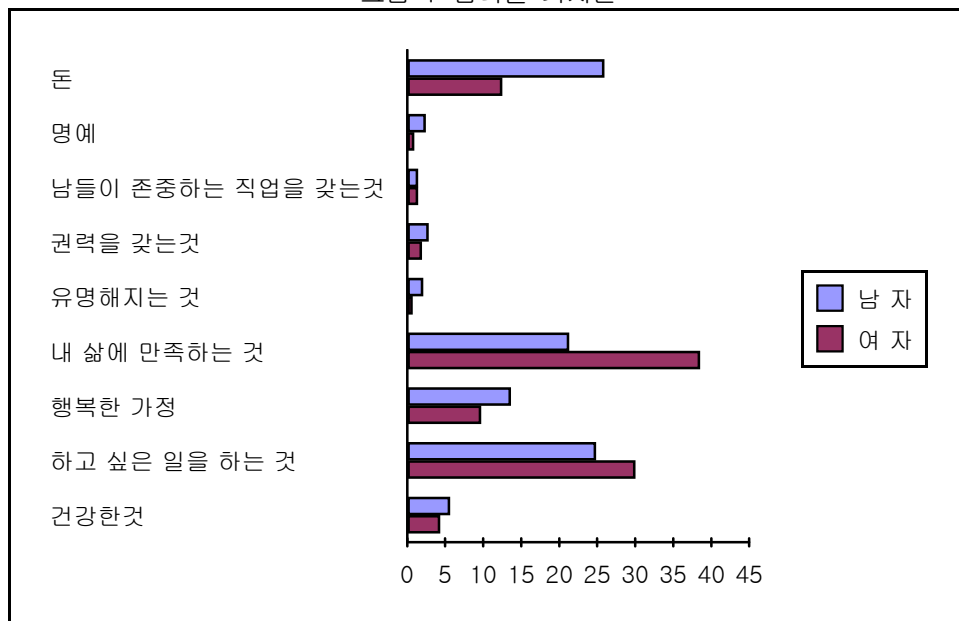
구 분		명 (%)
지 역	서울	242(34.1)
	경기	350(49.3)
	전북	118(16.6)
	합계	710(100)
성 별	남	287(40.4)
	여	423(59.6)
	합계	710(100)
학 년	1학년	296(41.7)
	2학년	294(41.4)
	3학년	120(16.9)
	합계	710(100)

III. 연구결과

1. 청소년들의 가치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돈, 명예, 남들이 존중하는 직업을 갖는 것, 내 삶에 만족하는 것, 행복한 가정,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건강한 것의 9개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31.5%의 학생들이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2위로 27.9%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돈'(17.9%), '행복한 가정'(11.3%), '건강'(4.8%)의 순서로 나타났다. '명예'(1.5%)나 '남들이 존중하는 직업을 갖는 것'(1.4%)은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소신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삶에 만족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남녀별 가치관



결과를 남녀별로 분석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 '돈'의 가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로 나타난 반면 '내 삶에 만족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여학생에게 더 중요한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들의 계층관

1) 부모의 계층

자신의 부모님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류층의 중’에 속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류층의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4.6%, ‘중류층의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12.8%로 나타났으며 ‘상류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1.3%, ‘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7%였다.

표 2. 부모계층 결정요인에 대한 지각

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 득	289(40.7)	94(13.2)	174(24.5)
직 업	106(14.9)	132(18.6)	189(26.6)
교 육	38(5.4)	83(11.7)	57(8.0)
집안배경	32(4.5)	73(10.3)	40(5.6)
소비생활	64(9.0)	136(19.2)	106(14.9)
재 산	150(21.1)	103(14.5)	105(14.8)
문화수준	29(4.1)	84(11.8)	36(5.1)
미응답	2(0.3)	3(0.4)	5(0.7)
합 계	710(100)	710(100)	710(100)

2) 부모의 계층 결정요인에 대한 지각

부모의 계층을 결정하는 기준을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제시한 기준요인들은 소득, 직업, 교육, 집안배경, 소비생활, 재산, 문화수준의 7가지였다. 그 중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소득요인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였으며 재산요인이 21.1%로 나타났다. 직업요인이 14.9%, 소비생활요인이 9.0%, 교육수준이 5.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소득, 재산, 소비 등의 경제적 수준이 계층을 결정하는 중요변인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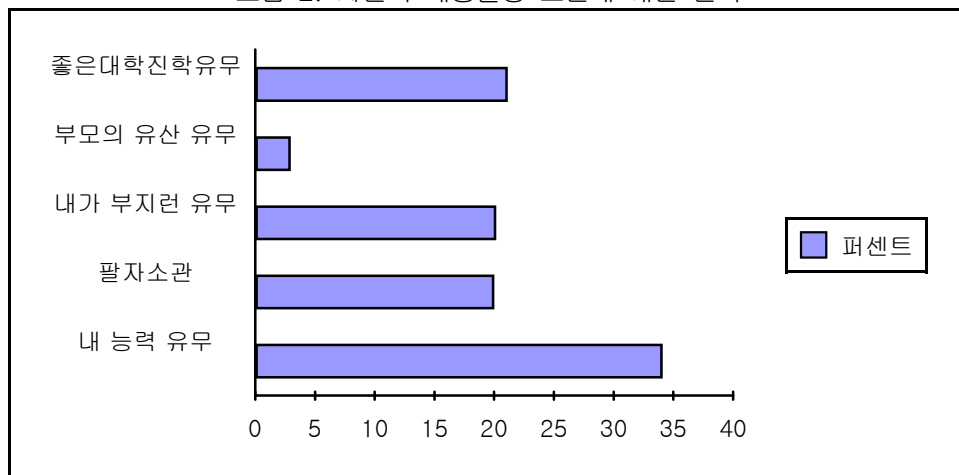
3) 미래 자신의 사회계층에 대한 예측

미래에 자기 자신은 어느 계층에 속할 것이라고 지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류층의 상’ 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2.0%로 가장 많았고 ‘중류층의 중’(21.1%), ‘상류층의 중’(16.6%), ‘상류층의 상’(15.5%) 순으로 나타나 부모보다는 자신의 사회계층이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자신의 계층 결정요인에 대한 지각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게 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능력 때문’(3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21.1%), ‘부지런하고 성실해서’(20.1%) 순으로 나타났으며 ‘팔자소관’(20.0%) 이라는 응답도 예상외로 많이 나타났다. ‘부모의 유산’으로 라는 응답은 3.1% 였다.

그림 2. 자신의 계층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3. 대학진학의 의미와 중요성

1) 명문대학 진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성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더 중요하다’(68.9%)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거의 비슷하게 중요하다’(13.2%), ‘덜 중요하다’(13.8%)인 반면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부모세대보다 성공의 중요요소로 작용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좋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로 표시하게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사교육이 (51.97%) 공교육(49.13%) 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지역에 따라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가 그림4 에 나와 있다. 서울, 경기권의 학생들이 사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북지역의 학생들은 공교육이 더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사교육비 지출 현황

매달 사교육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5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5.9%에 달했다. 20-40만원이 30.8%, 10-20만원이 11.1%,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 진학의 결정요인에 대한 지각

좋은 대학을 가는데 중요한 요인을 보기를 주고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씩 고르게 하였다. 이때 제시한 보기는 ‘본인의 노력’, ‘지능’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심리적 지원’, ‘좋은 선생님’, ‘운’, ‘좋은 학원’, ‘체력’의 8가지였다.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뽑은 요인은 ‘본인의 노력’으로 다른 요인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74.9%의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된 것은 ‘지능’으로 전체 응답 중 26.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17.2%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내용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운’ 이라는 응답으로 25.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3. 대학진학결정요인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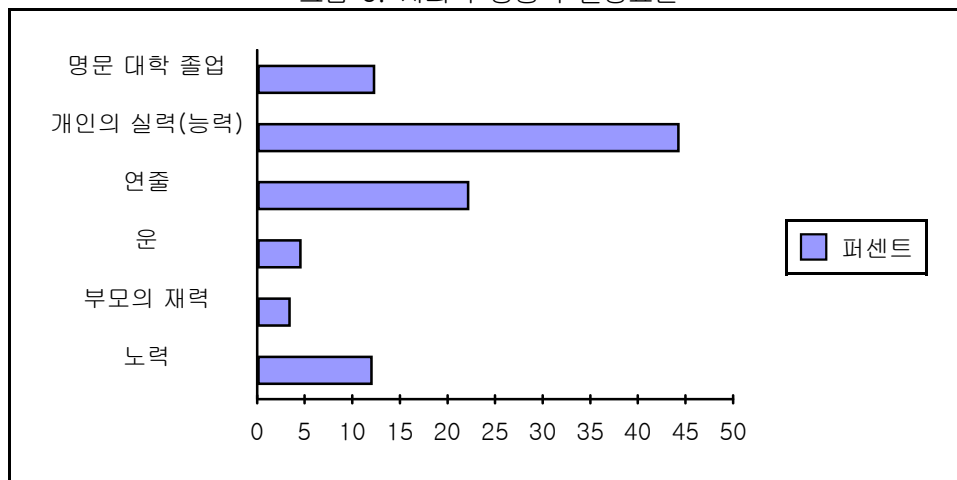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본인의 노력	532(74.9)	98(13.8)	46(6.5)
지 능	69(9.7)	186(26.2)	85(12.0)
부모의 경제적 지원	38(5.4)	121(17.0)	115(16.2)
부모의 심리적 지원	13(1.8)	72(10.1)	72(10.1)
좋은 선생님	15(2.1)	89(12.5)	97(13.7)
운	21(3.0)	58(8.2)	181(25.5)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좋은 학원	10(1.4)	21(3.0)	27(3.8)
체 력	9(1.3)	63(8.9)	83(11.7)
미응답	3(0.4)	2(0.3)	4(0.6)
합 계	710(100.0)	710(100.0)	710(100.0)

5) 성공의 결정 요인에 대한 지각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의 실력(능력)’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도 볼 수 있었는데, ‘명문대학 졸업’이 중요하다는 응답(12.4%)보다 ‘연줄’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2.3%로 훨씬 많이 나타났다. 이는 지연, 학연, 혈연이 중시 되는 우리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인의 노력’(12.1%), ‘운’(4.6%), ‘부모의 재력’(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사회적 성공의 결정요인



4. 청소년들의 노동관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노동관을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가치, 사무직 종사자와 육체노동자의 임금 차에 대한 지각과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태도, 실업의 원인에 생각을 알아보았다. 또 취업을 위해서 지방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1) 실업의 원인에 대한 지각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었다’라는 진술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응답이 85.7%에 달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실업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파업 기간의 임금지불에 대한 태도

‘파업기간에는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2.4%)와 별로 그렇지 않다(35.8%)를 합한 응답 비율이 48.2%였으며, 반대로 ‘대체로 그렇다(37.7%)’와 ‘정말 그렇다(14.1%)’를 합한 비율이 51.8%로 조금 더 많았다.

3)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가치

‘정신노동은 육체노동보다 우월한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응답(59%)이 ‘대체로 그렇다’와 ‘정말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41%)보다 좀 더 많았다. 청소년들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가치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차에 대한 지각

‘학력수준이 같다면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간의 임금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응답(64.5%)이 ‘대체로 그렇다’와 ‘정말 그렇다’를 합한 응답비율(35.3%)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육체노동이 정신노동보다 가치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나타낸 이전 문항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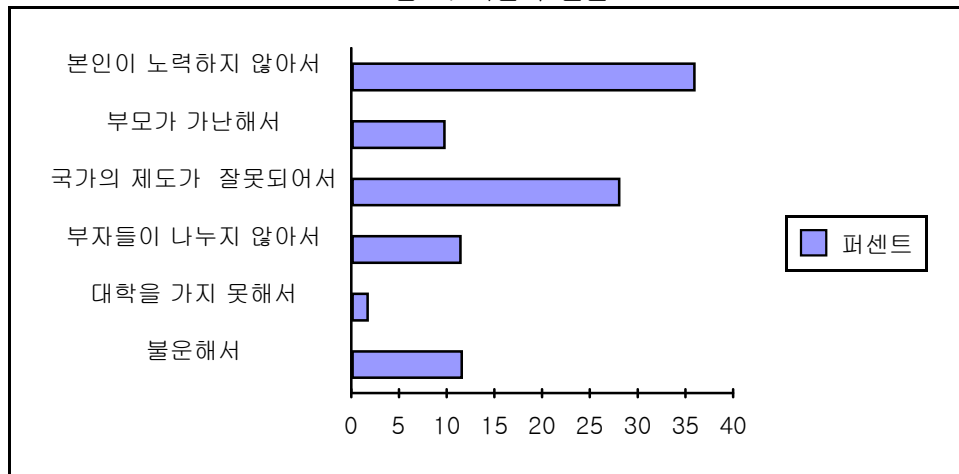
5) 중소기업 취업 의사

‘취업을 위해서는 지방이나 중소기업이라도 갈 생각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54.5%로 ‘그렇지 않다’(45.5%)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6) 가난의 원인에 대한 지각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의 제도가 잘못되어서’라는 응답이 28.2%로 나타나 가난이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자들이 나누지 않아서’(11.7%), ‘불운해서’(11.5%)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고 부모가 가난해서(9.9%)라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반면 ‘대학을 가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 4. 가난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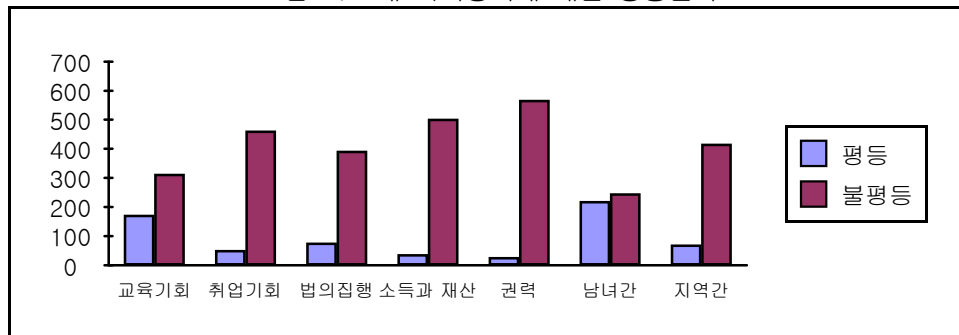
5. 우리사회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

1) 7개 분야의 평등성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알아보기 위해 7개의 분야를 선정하였다.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소득과 재산, 권력, 남녀간, 지역간의 평등정도에 대해 ‘매우 평등’에서 ‘매우 불평등’의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남녀’간의 평등성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하다는 반응이 평등하다는 반응보다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권력’ 부분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인데 비해 80.1%의 청소년들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반응이 ‘소득과 재산’에서 나타나 71%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 5.4%만이 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업기회’가 불평등하다(65.2%)는 인식이 평등하다(7.3%)는 인식보다 많았다. ‘지역간 평등’에 대해서도 많은 청소년들(58.8%)이 불평등하다고 지각하여 평등

하다고 지각한 청소년들보다 (10%) 훨씬 많았다. ‘법의 집행’도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55.5%). ‘교육기회’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불평등한(44.2%)것으로 나타나 평등하다고 인식한 24.5% 보다 많았다. 청소년들이 다른 분야와 달리 실제 경험한 분야인데 교육기회가 왜 불평등하다고 지각하는지 후속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남녀’간 평등요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평등하다는 지각(37.2%)과 불평등하다(34.8%)는 지각이 비슷하게 나타난 유일한 분야였다.

그림 5. 7개 사회영역에 대한 평등인식



2) 평등과 관련된 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39.2%였다. 반면 비슷한 비율인 39.6%의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교육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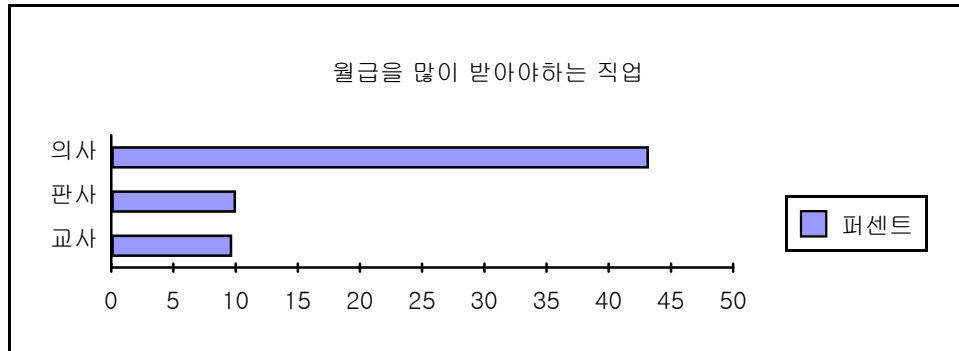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회의 중요한 지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66.3%가 반대의 의견을, 15.4%가 찬성의 의견을 나타내 대체적으로 남녀평등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직업지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만큼 수십개의 직업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대표적인 13개의 직업을 제시하고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위상을 다차원적으로 알아보았다. 제시된 질문은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할 직업,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직업,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직업에 대한 것이었다. 제시된 직업은 신문기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공장직공, 간호사, 목사, 정치가, 연예인, 운동선수, 교사였다. 이 가운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기

존의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친근한 직업일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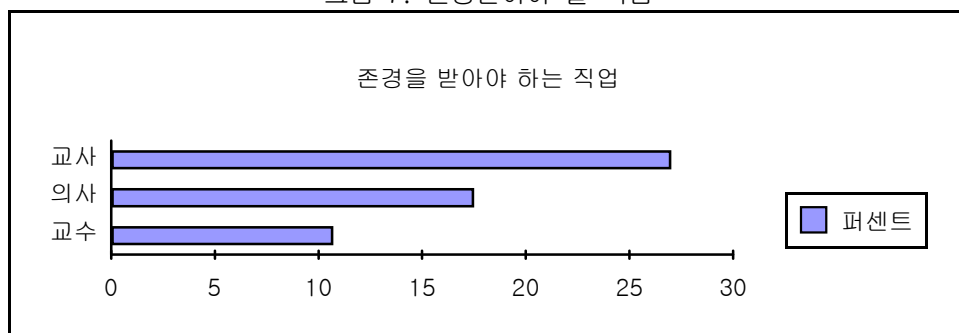
그림 6.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하는 직업



첫 번째 질문은 “월급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직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였다. 1 순위는 의사로 43.2%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2위부터는 선택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판사(10.0%), 교사(9.7%), 공장직공(9.6%), 연예인(4.6%), 운동선수(3.9%)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월급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추후 연구에서 판단 기준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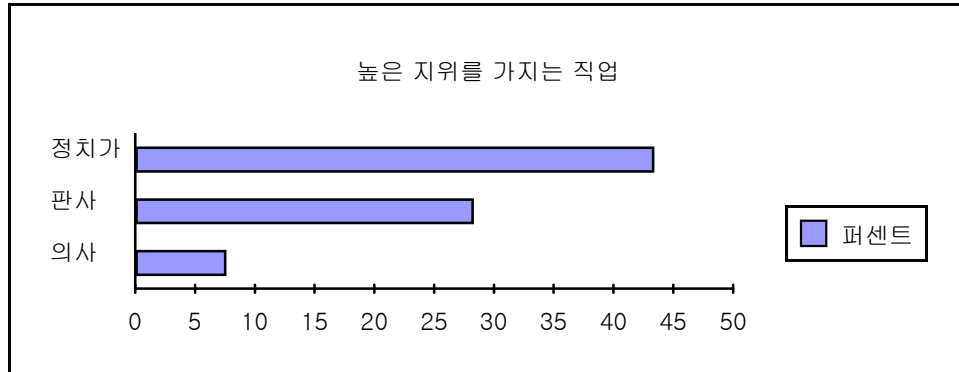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들이 존경받아야 할 직업으로 생각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13개의 직업군을 주고 선택하게 하였다. 1위로 나타난 직업은 교사로, 27.0%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의사(17.5%), 교수(10.7%), 목사(9.4%), 판사(8.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존경받아야 할 직업



우리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정치가(43.4%)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판사(28.3%), 의사(7.6%), 검사(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직업으로 꼽힌 교사의 경우 0.7%의 응답 비율만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림 8.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



7.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차별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모두 5개 요인을 주고 가장 차별이 많이 나타나는 분야를 선택하게 하였다. 결과를 보면 ‘학력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모두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빈부차별’, ‘외모차별’, ‘남녀차별’, ‘지역차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서는 남녀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남녀차별이나 지역차별보다 외모차별이 더 많다고 응답한 결과로, 외모지상주의로 대별되는 현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5>는 사회적 차별응답 결과를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경기지역 학생들은 학력차별을 강하게 지각하는 반면 전북지역학생들은 타 지역학생들보다 빈부차별이나 출신지역차별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차별에 대한 지각에 개인의 경험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9. 요인별 사회적 차별정도에 대한 인식(남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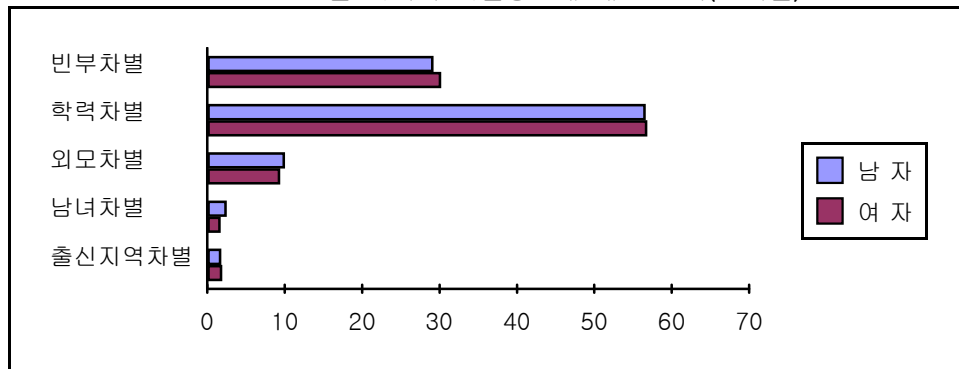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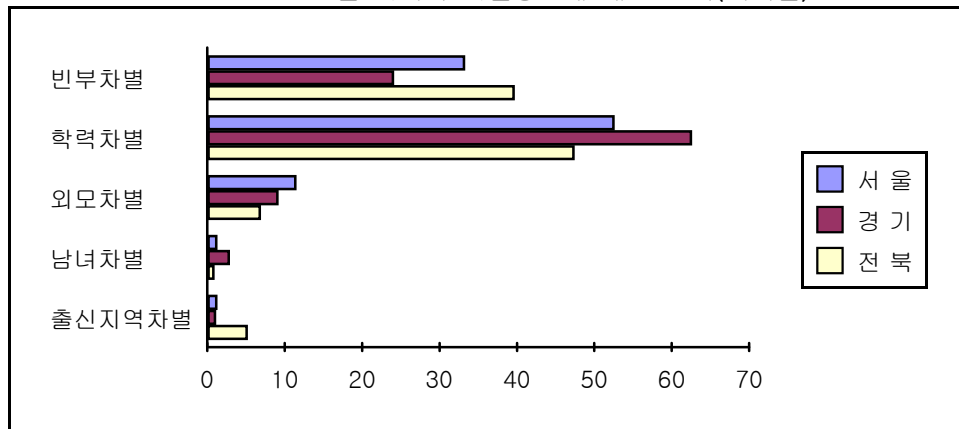


그림 10. 요인별 사회적 차별정도에 대한 인식(지역별)



8.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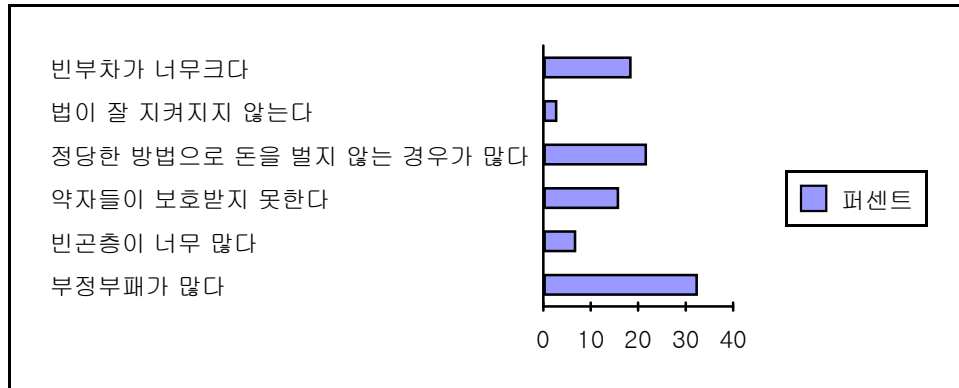
1) 우리사회의 정의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별로 정의롭지 않다’(65.2%)와 ‘전혀 정의롭지 않다’(23.9%)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89.1%에 달했다. 그에 비해 ‘매우 정의롭다’(0.5%)와 ‘대체로 정의로운 편이다’(9.7%)라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청소년들은 한국사회를 정의롭지 않은 사회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개의 선택문항을 주고 응답하게 하였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부패가 많다’는 것으로 전체의 32.5%가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경우가 많다’(21.8%), ‘빈부차가 너무 크다’(18.6%),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15.9%), ‘빈곤층이 너무 많다’(6.9%),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3.0%)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1순위로 나타난 부정부패가 어떤 요인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1.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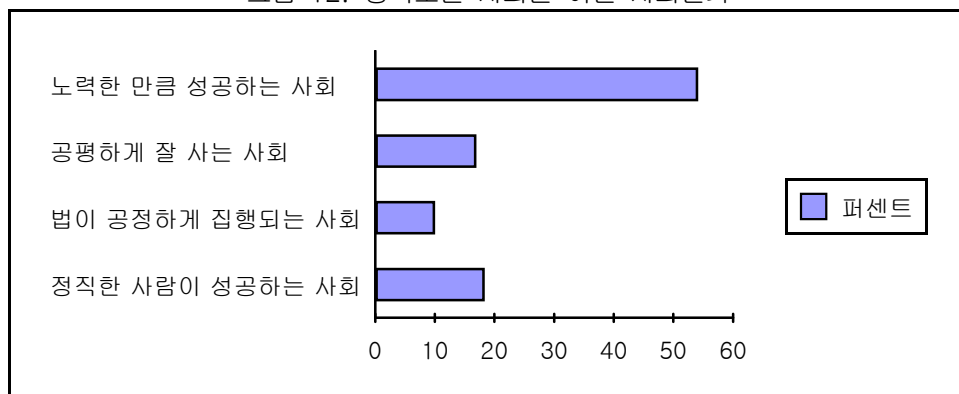
3)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과연 청소년들은 어떤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4개의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게 하였다.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선택한 것은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54.1%)였다. 다음으로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18.3%),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16.9%),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청소년들의 관심분야

청소년들이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에서 제일 관심있게 보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질문하였다. 청소년들은 연예기사를 가장 많이 보았으며(38.3%) 다음으로 사회면(28.3%), 스포츠(16.8%), 경제면(9.4%), 정치면(6.2%)로 나타나, 정치문제에 가장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IV. 종합논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모습은 급격한 사회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지만 그들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밝힌 연구는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의 정의와 평등, 계층결정요인, 노동문제, 사회적 차별과 같이 사회적 이슈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와 더불어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대학진학과 관련된 문제 및 그들의 가치관, 직업관, 성공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조사한 연구가 없어 다른 조사결과와의 비교나 변화의 특성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몇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다. 한국사회가 정의롭지 않으며 평등하지 않은 요소가 많고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청소년들이 한국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정부패가 많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빈부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차별이 많은 부분은 학력차별이며 다음이 빈부차별, 외모 차별순으로 차별이 많은 반면 성차별이나 지역차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80년대와 9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에 지역차별이나 성차별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2000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눈에 지역차별이나 성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외모차별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외모지상주의로 대변되는 현시대의 외모 중시 풍조로 인해 외모의 가치와 중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사회의 평등성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7개 분야 모두에서 평등하다는 응답보다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우리사회에서 가장 평등하지 않은 분야는 ‘권력’분야이며 ‘소득과 재산’ ‘취업기회’ 역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강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서술에 대하여도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사실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가치가 별로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임금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파업시 임금지불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 취업을 위해서는 지방이나 중소기업에라도 갈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절반이상이었다. 청소년들은 자신과 부모의 계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소득이 가장 중요변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계층결정요인으로 자신의 능력과,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했지만 의외로 팔자소관이라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운’이라는 응답이 상당수 나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자신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외에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운’이라는 요인은 외부적이면서 불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자신의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성공한 타인에 대해서도 평가절하 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회전체로 보아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청소년들은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부모세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수가 과반수를 넘었다. 또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자신의 지능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직업은 선생님이요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은 정치가이며 월급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직업은 의사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집대상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학생의 응답만을 모은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청소년들의 생각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여러 다양한 학교군들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조사 연구와 병행하여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청소년들의 생각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실제로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육체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질문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집단, 성인집단 과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묘성. (2004). 「정치문화 사회인식 및 정치참여행동에 관한연구: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비교」.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연차학술대회발표 논문집, pp327-333. 한국심리학회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 34집, pp 241-268.
- 김순홍. (2004). 「한국 청소년의 삶과 의식구조」.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순홍. (2007).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pp 103-129.
- 김의철, 박영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특집호, pp 21-53
- 김유연. (2000). 「가정호나경변인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 석현호 편. (1997).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출판
- 안규삼. (2000). 「사회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각범. (2006).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청소년개발.
- 이건만. (1998).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과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8(2), pp183-205
- 이병훈, 윤정향. (1997)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 임현진 외. (1996).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조금호, 박여미. (2005).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일관성 선호 경향 및 가치관 수용의 관계」. 人間理解, 26, pp 69-92.
- 정명숙, 김혜리(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 에서 세대 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pp 115-135.
- 차종천. (1997). 「직업구조와 분배의 불평등. 석현호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출판, pp79-12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5세 이상의 계층의식」. 서울특별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투고일자 : 2013. 11. 11

수정일자 : 2013. 12. 10

게재일자 : 2013. 12. 19

국문초록

한국청소년의 정의사회에 대한 인식

김지경(한국교원대)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의 시각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며 그들의 생각을 인터넷이나 촛불집회등을 통해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들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계층관, 노동관, 정의관, 평등관, 직업관, 인생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우리사회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부정부패가 많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빈부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란 무엇일까?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이다. 계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과 재산이었다.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부모세대보다 더 중요해졌으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지능,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을 꼽았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개인의 능력 외에도 연줄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직업관에 대한 조사결과, 존경해야 할 직업으로는 선생님을,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할 직업은 의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는 정치가를 꼽았다. 권력과 소득, 취업기회에 있어 불평등이 심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가치가 다르지 않고 따라서 임금차이도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추후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한국청소년 한국사회 정의사회 사회적 인식